

보훈가족 후원, 교정교화, 극빈층 급식 등...

남순덕 진여원 원장



남순덕 원장은 ... 1948년 4월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다. 1978년 부산 남포동 대각사에서 어린이법회후원회 회장과 총무업무를 맡아 활동하며 후원회원 600여명을 모집하는 등 포교 활동을 펼쳐왔다. 1996년 진여회를 창립하고 1997년 진여원을 개원했다. 그후 무료급식, 교정교화 활동, 군포교 활동,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제 및 유가족 위안잔치 등을 개최하며 포교와 자비실천에 앞장서왔다. 1983년 소년원 감별소(현재의 소년원 대안학교)서 교정교화 활동을 펼치며 1996년 7월 법무부 분류심사원 교정위원회로 위촉됐다. 2000년 9월 법무부 부산 구치소 교정 위원으로 임명되며 현재까지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년 12월 김정길 법무부 장관상 표창, 2002년 5월 정청근 국회의원 표창, 2009년 8월 허태열 국회의원 표창, 2006년 12월 김성호 법무부 장관 표창, 2009년 6월 허남식 부산광역시 표창, 대한불교 포교원장상 등을 받았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달이다. 이들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이들이 바로 보훈가족이다. 보훈가족들에게 자비행을 펼치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 부산 구포에서 조계종 직할 포교원 진여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순덕(67·보타월) 원장이다. 보훈가족 돕기는 물론 극빈층 무료급식, 군법당 지원, 교정교화 등 32년 동안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남 원장. '보타낙가산(寶陀洛伽山)의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을 비취랴'는 의미를 가진 '보타월'이란 불명처럼 이웃을 위해 자비 실천을 행하고 있는 남 원장을 5월 29일 진여원에서 만났다.

무료급식에서 보훈가족과의 만남까지

남 원장이 보훈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7년 전 구포 지역 극빈층을 돕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부산 구포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 근처 수월선원에 들러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구포역을 지나려고 하는데 거지와 노숙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루 이틀, 많게는 나흘씩 굶고 있었어요."

구포역의 노숙자들을 보고 온 날이면 가슴이 아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리하다가 절에 들어오는 시주쌀이 떠올랐다. "당시 수월선원에 쌀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류이면 벌레도 생기고 시주를 받았지만 다 먹기엔 양이 많을 때도 있었어요. 주지 무정 스님의 허락을 받아 구포 지역의 극빈층을 돕기 시작했죠"

남 원장은 수월선원 신행모임 진여회 회원들과 함께 1996년 2월 '진여봉사단'을 결성하고 매일 600인분의 주먹밥을 만들어 무료급식에 나섰다. "저를 포함해서 12명 회원이 함께 했죠. 함께 예뻐도 드리며 매일 주먹밥을 만들어 돌렸어요. 그런데 그중 회원 한 명이 예를 시간에 부산 북구 지역에서 희생된 428명 호국 영령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바로 대한민국 전몰군경 북구 미망인인 지회장 황정자 회원이었어요."

매일 같이 호국영령을 위해 기도하는 도반의 모습에 남 원장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또한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에 대한 국가의 처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남은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도 절감했다.

"부산 북구에는 지금도 보훈 화관이 없습니다. 이는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국가차원에서 지원비가 넉넉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니 생계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정부, 식당 서빙 같은 일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자녀들 학비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들어보였어요. 또한 아버지 아들을 잃고 생계마저 어려워니 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어 더욱 안타까웠죠." 한 달에 한번 구포지역 미망인과 유가족들이 모여 마을을 터놓는 시간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가까이서 듣게 된 남 원장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다들 어려운 형편에 각자의 지갑을 열어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분들이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비라도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보훈가족들의 모임에 식사를 제공

하며 남 원장과 보훈 가족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위령재를

1997년 남 원장은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금을 담보로 구포역 근처 음식점 건물을 전세로 빌려 포교당인 진여원을 설립하게 된다. 진여 봉사단과 함께하는 진여원은 개원과 함께 군경전몰장병영가 위패 428패를 봉안하고 합동천도제를 지내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천도제는 유가족의 상처를 풀어주며 위로의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이후 구포 3·1운동 기념탑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호국영령 위령대제 및 보훈가족위안행사'를 17년째 이어오고 있다. 또한 '피난음식 함께 나누기 보리밥 시식' 및 '보훈가족위안잔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보훈가족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동시에 장학금 및 지원금도 후원하고 있다.

1996년 2월 진여봉사단 결성

회원 12명과 매일 600인분 무료급식

1997년 남편 퇴직금 담보로 포교당 설립 32년째 재소자 위한 교정·교화사업 펼쳐

호국영령 및 보훈가족 후원 17년째 계속 유가족 처우 위한 사회제도 개선 요구도

2002년 구포 현충공원 내 추모비 건립 군법당 '호국 진여사' 불사도 추진중

"국가나 여타 기관에서 후원금 보조를 받은 적은 없어요. 매년 장학금과 지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다들 궁금해하죠. 공무원의 아내로 오직 부처님 일 때 매달려 살아왔고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 통장에는 단돈 백만원이 없어요. 후원자가 있다면 바로 불자님들이죠. 봉축 때마다 진여원에 등을 다는 불자님들의 정성으로 보훈 가족들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29일 구포역 근처 화명 제3근린공원 내 추모비를 건립했고 이후 진여원의 노력으로 근린공원으로 현충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쾌거를 이룬다. "진여원이 해체되는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세들어 있던 건물이 매각이 되면서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죠. 그 때 남편의 퇴직금을 담보로 있던 진여원의 전세금 5000만원을 돌려받았는데 이 돈을 추모비 건립에 투자했죠. 추모비에는 호국영령의 이름을 하나 하나를 새겼어요. 울어도 추모비 앞에서 울라고 가족들을 다독였죠." 이후 진여원은 다시 남편

의 퇴직금을 담보로 해 현재의 자리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남 원장은 오늘도 유가족과 미망인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6월 12일에 '호국영령 위령대제 및 보훈가족위안행사'를 열어요. 봉축이 끝난 뒤 회향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의 가피로 진정한 불법을 만나다

남 원장이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36년 전이다. 남편의 불치병 선고에 눈앞이 캄캄해졌던 30대 초반의 남 원장은 부산의 대각사를 찾았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그는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연년생의 어린 아이 셋을 법당에 얹혀 놓고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며 약사여래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지금은 남편의 병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안나요. 십이지장을 7cm 정도 잘라내야 하는 대수술을 해야 하는 병이었죠. 당시 의사 선생님은 그 유명한 장거리 박사님이셨으니 오직은 생각 할 수도 없었어요. 재차 검사를 받아도 같은 결과였어요. 남편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까마득했죠.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선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병간호를 하며 세 아이를 돌보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낸 지 10년, 남편은 놀랍게도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 원장은 보시행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라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아이를 키우면서 11명의 대가족을 건사해야 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행을 하면 되겠다고 마음 먹었죠."

대각사에 기도를 나간지 1년여 시간이 지나자 조실 경우 스님이 남 원장을 불렀다. 한자에 능했던 경우 스님의 법문을 한글로 잘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가 결혼 전에 시골 면사무소에서 전언통신문을 담당했어요. 본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시기여서 급한 내용은 전화로 받아 공문을 작성해 보내는 업무였죠. 그때의 경력이 도움이 되었어요. 스님의 법문을 받아 적으며 경우 스님의 법문을 연재하는 주간불교신문에 전달했어요."

이를 계기로 대각사의 종무 소임을 맡게 되었고 어린이 법회 후원회 회장으로 역할하게 된다. "어린이 법회를 후원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봤죠. 어린이 법회에 필요한 간식과 교구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주었어요. 회원모집도 열심히었죠. 제가 구포로 이사를 하기 전까지 대각사 어린이 법회 후원회원이 600여명으로 늘어났어요. 능력을 인정받고 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이 컸어요."

남편의 직장이 구포로 옮겨지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남 원장은 근처의 수월선원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곳에 비가 오면 물이 썰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불자들의 수행교육도 전혀 안되어 있었고 종무소도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했어요. 차근차근 종무소 불사와 기도법 교육, 경전 읽기 등 수월선원을 찾는 불자들을 위해 일했죠. 그리고 10년 후 수월선원 주지

※ 법화경·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생문산>
정가 5,000원(1권)
※키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경전사경·사경지 ※

1호 반야심경(한문)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2호 금강경(한문)
정가 5,000원(1권)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올셋 4
• 제 본 : 한정본 실제본
• 크 기 : 220mm×310mm

반야심경 탐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 구 성 : 한지남장
• 크 기 : 636mm×313mm
• 종 류 : 한문,한글

영가웃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웃 B형-여

영가웃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웃 C형-여

수자영가웃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동남영가웃 정가 800원

동녀영가웃 정가 1,000원

종이신발(남/여) 1컬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가 1,500원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한지·인쇄접은영가웃(남/여)
정가 27,000원 (100부)
할인가 @240원 (1000부이상)

금강호신경
100호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라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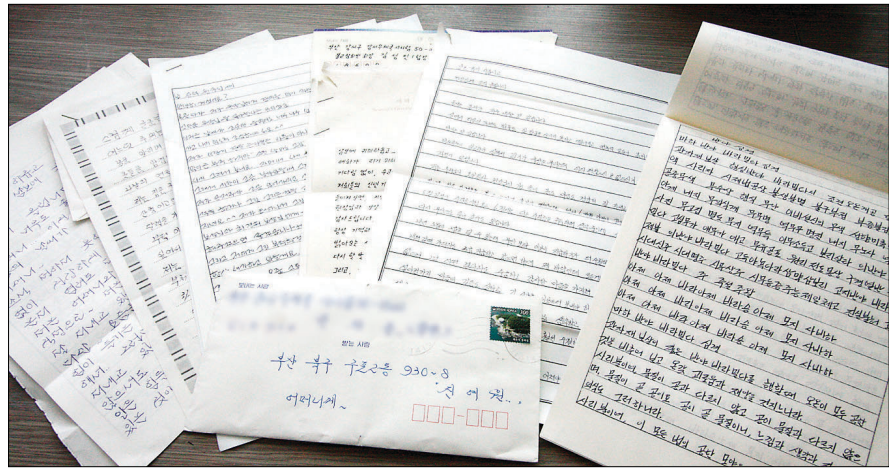
이웃 어루만진 자비행



남순덕 원장은 17번째 보훈가족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02년 5월 호국영령 추모비 건립 기공식 (가운데가 남순덕 원장)



남순덕 원장은 17년 동안 진여봉사회와 함께 구포에서 무료급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남 원장이 초창기 구포역에서 노숙자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모습.



32년 동안 교정교화 활동에 매진해온 남 원장은 재소자들과 오랜 시간 편지를 주고 받고 있다.



2000년 부산 소년원 감별소에 해수관세음보살 입상 점안식을 병행한 남순덕 원장(맨 오른쪽)

였던 무정 스님이 경남 양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수월선원과의 인연도 마무리됐죠.”

모두의 가슴 속에 불성을 심어주고자

이후 도반으로 함께 활동하던 수월선원 '진여봉사단'과 함께 진여원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지금 운영하는 포교당 진여원이 있기까지는 20년 동안 대각사와 수월사의 절 살림을 살면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가 많은 도움이 됐죠. 또한 진여봉사단 도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재가자인 제가 포교원을 운영하는 것이 무모했을지 몰라도 기도하며 얻은 변화와 지혜, 그리고 나눔에 대한 열의를 통해 진여원을 찾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진여원은 무료급식은 물론 동지팔족 나눔 행사, 재소자들을 위한 교정 교화 사업, 소외 이웃을 위한 이·미용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반찬도시락 제공, 백미 전달, 군법당 포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재소자들을 위한 교정교화 사업은 남 원장이 진여원을 개원하기 전부터 진행했던 봉사로 올해 32년째다. 현재 그는 부산 구치소 교정위원으로 법무부에서 인가를 받을 정도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취재를 위해 진여원을 찾은 당일 날에도 남 원장의 책상에는 손으로 눌러 쓴 편지가 놓여 있었다. 또한 옆의 박스에는 금강경,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 모본품, 반야심경까지 사경지가 한가득 담겨 있었다. 모두가 재소자들이 보낸 것으로 봉투에 적힌 수신처는 ‘어머님께’였다. 매일 3째주 월요일과 화요일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를 찾아가

는 남 원장은 그들에게 어머니와 다를 없었던 것이다.

남 원장이 교정교화에 매진하게 된 계기는 지인의 조카가 폭력으로 감별소에 들어가 있을 당시 매일 면회를 가면서부터다. 감별소는 현재 소년원 내의 대안학교로 형을 받기 전 죄의 유무를 평가하는 기관이다. 심사원 직원들이 ‘심성순환’을 요청하며 남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남 원장은 한 달에 한번 200여 청소년들을 만나 간식을 전달했고 부처님 법을 전했다.

“감별소에 있던 아이들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면 형을 받아 소년원에 가게 되는데 그럴 때면 아이들을 지옥에 보내는 심정이었죠. 제발 소년원에는 가지 않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때 지장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자비 실천을 통해 부처님이 어떤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셨는지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남 원장은 감별소에 법당을 지었고 면회 오는 부모들을 위해서 법당 밖에 해수관세음보살을 봉안했다. “이제는 해수관세음보살의 발이 새까맣졌어요. 이곳을 찾는 부모님들이 두 손으로 관음상의 발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어온 인연이 32년, 현재는 형을 마치고 세상에 나온 재소자가 남 원장을 찾아 진여원을 방문한다고, “그들이 지금은 진여 봉사단 회원이 되고 또 봉축에는 진여원을 찾아와 연등을 달며 감사한다는 인사를 잊지 않아요.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다고 말해요.”

또한 남 원장은 현재 부산 6339부대, 6대대에 ‘호국 진여사’ 봉사를 진행 중이다. “7월 중 중공식을 시작해 본격적인 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대에는 법당이 없어 군인들이 예불을 드리기 위해 먼 절에 가거나 작은 공터에서 예불을 진행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 시작하게 됐어요. 예산이 넉넉해 시작한 일은 아니에요. 부대에서 요청을 하길래 그냥 ‘네’라고 대답해버렸죠. 군인들이 2년 동안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깨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남 원장의 최종 목표는 ‘문턱이 없는 법당’을 만드는 것이다. 법당 중에 최고의 법당은 인(人)법당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부처님 법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 불성, 마음자리를 알게 되길 바란다

“많은 주부들이 진여원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행을 통해 부처님의 참 마음을 배우게 되죠. 이곳이 그들에게 복을 비는 공간이 아닌 실천 수행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사실 교리적인 부분은 잘 몰라요. 자비 실천을 하다보면 가슴 깊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실천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지혜를 얻고 삶이 나아지기를 기원할 뿐이죠. 법당이 따로 있나요?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법을 통해 세상과 나눌 수 있으면 그곳이 곧 법당이죠.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참 부처님을 찾아 주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남 원장은 “20여 년 함께해온 진여봉사단 회원들과 함께여서 오늘의 불사가 가능했다”며 “그들에게 진정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츄부다라니’와 일대사 인연

필자는 대학 4학년 때 낙산사에 출가하게 되었다. 관음도량인 낙산사에서 염불기도를 할 때 당연히 ‘관세음보살’ 정근을 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지장보살’ 정근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지장기도가 필자와 잘 맞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중들로부터 눈총을 받은 적도 많았다.

군승으로 임관하여 전·후방 부대 주지를 거쳐 1993년에 국방부 법당 호국영왕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자연스럽게 지장 신앙을 강조하게 됐다. 대부분 주지 스님들이 관음신앙을 강조했는데 신임 주지가 갑자기 지장신앙을 강조하니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저러구 이야기가 많았다. 사 이비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다.

국방부법당 원왕사 주지로 부임해서, 신도들과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 1

차례 김지장보살이 되신 교각스님의 육신을 보면서 아침예불을 하니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이어 북지장사로 성지순례를 갔다. 여기서 한 노스님이 말했다.

“지장수행자들은 츄부다라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김교각 보살의 기도에 이어 노스님의 말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하다가 츄부다라니 기도를 하려니 신도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츄부츄부 츄츄부’ 하는 발음 때문이었다. 한 신도는 이렇게 말했다.

“스님 굳이 ‘츄부다라니’를 해야 하나요? 다른 진언보다 가법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다라니 수행을 하면 안될까요?” 지금 시대에서 보면 지장신앙과 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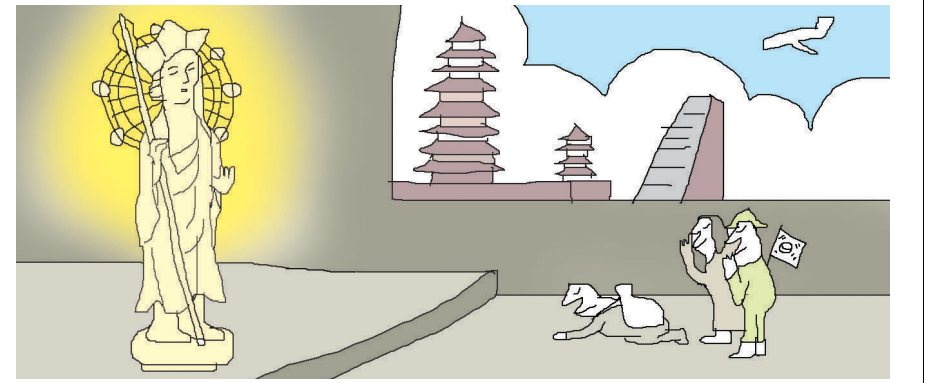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번씩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었다. 이 약속은 6군단 불사 법당으로, 전근을 갈 때 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뤄져 총 40여 회에 달하게 됐다.

그중 세 번은 해외성지순례로 이어졌다. 그중 하나가 1996년에 6월 신도들과 함께 구화산 성지순례를 간 것이었다. 호 텔에 도착 후 철야정진을 하기 위해 등산불이 모셔져있는 육신보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늦은 시간이라 가이드의 간절한 부탁에도 산문을 열어주지 않자, 허탈해진 신자들은 호텔로 돌아가고 다섯 사람만이 남았다. 이들이 불빛이 흘러나오는 육신보전을 향해 108배라도 하고 갈 요량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지장기도가 철야정진으로 이어졌다. 이들 모두 김지장보살을 바라보며 각자의 소원을 싣고 구화산이 떠나려갈 정도로 ‘지장보살’을 애 썼다. 아침 3시경 산문 담 위로 전등불이 보이더니, 육신보전을 지키던 스님들이, 우리들의 간절한 지장보살 정근소리에 감응했는지, 문을 열어 주면서 자신들보다 먼저 김교각 지장보살님께 아침예불을 올리라고 하였다. 각자의 발원을 바탕으로 1,200년 전에 이 땅을 떠나 타국 만리에서 부처님의 원력을 펼

니 독송이 보편화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상하게도 ‘츄부다라니’를 포기할 생각없이 계속 강조했다. 츄부다라니 수행을 하다 보니 잠정이 상당했다. 먼저 신묘장구대다라니보다 짧고 광명진언보다는 긴 것이었다. 이 정도 길이는 처음 진언기도에 발을 들이는 신도들에게 매우 적당하다고 생각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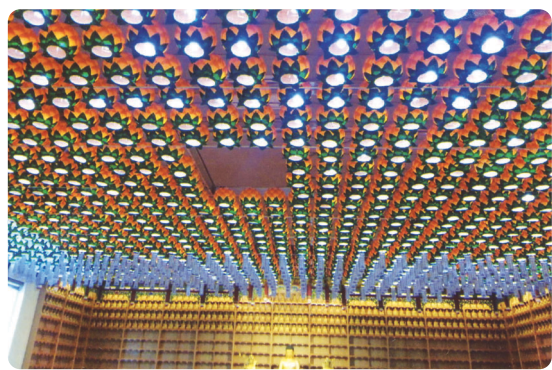
귀국 후 치악산 매봉자락 정력에 터를 구하고 김교각 지장보살상을 모신 명주사를 건립한 이후 지장기도를 중점적으로 했다. 여기에는 성지순례에서 한 츄부다라니가 주력 수행으로 자리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하면 신도들이 이제는 수행의 트레이드 마크로 ‘츄부다라니’ 정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장기도가 자리잡은 것은 성지순례에서 김교각 지장보살의 불법을 다시 퍼겠다는 원력의 가피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우리의 모든 전법 활동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는 일대사 인연인 것 같아, 부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한선학 고관화박물관 관장(명주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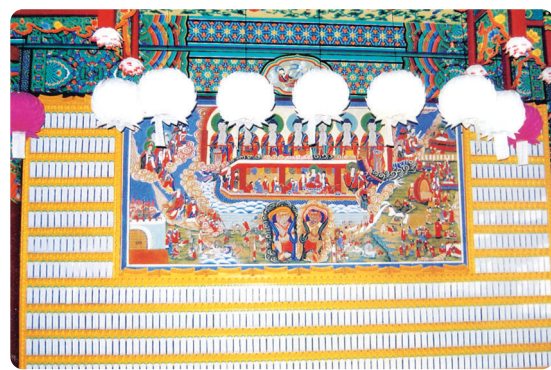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동



원주 보문 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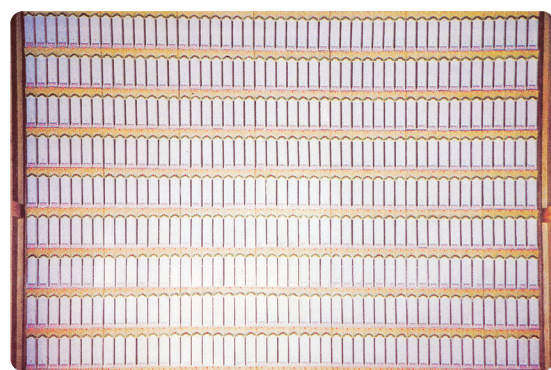
제주 월성 위



제주 월성 인



월 산 무위 대법



장 보 위



종인 본



대나무 부 (불, 불, 종 불상)



진

가

만 월

전화 010 0 . 0199 10
기 시 동 은 로 100